

고전시가에 나타난 음식 이념의 양상과 그 의미*

- 시조를 중심으로 -

조성진*

<차례>

1. 문제제기
2. 음식 이념의 양상
3. 음식에 담긴 사회정치적 함의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시조에서 음식이 소재로 쓰였거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작품을 대상으로 작품 속에 나타난 ‘음식’과 ‘먹음’의 다양한 의미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음식 이념(Food Ideology)’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그 이념들이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살피고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쾌락주의(hedonism)는 감각적 쾌락을, 영양주의(nutritionism)는 건강과 영양 가치를, 영성주의(spiritualism)는 도덕이나 형이상학적 가치를 중시하고 지향하는 이념이다. 연구 결과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식이 술인 경우 세상일을 회피하고 시름을 달래는 수단의 의미를 띠면서 동시에 욕망 긍정과도 상통한다. 둘째, 시조 작품에는 쾌락 지향과 이념 지향이 뒤섞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회적 균형 감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음식과 먹음이 화자의 사회정치적 지향을 드러내고, 그가 지닌 이념을 구현하는 매개물 구실을 할 때도 있다. 이런 점에서 시조 작품에 나타난 음식과 먹음은 사회정치적 함의가 아주 강함을 알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5년도 광주과학기술원의 재원인 첨단산업기술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광주과학기술원 조교수

주제어] 시조, 음식, 먹음, 정체성, 음식 이념, 영성주의, 쾌락주의, 영양주의.

1. 문제제기

이 시대에 음식은 육체적 생존을 위한, 단순한 먹을거리 이상을 의미한다. 이른바 ‘웰빙(well-being) 바람’이 불면서 사람들은 전에 없이 음식에서 영양과 건강을 따지고 ‘삶의 질’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이에서 더 나아가 음식에서 미각은 물론 시각이나 후각과 같은 감각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음식은 식도락이라는 쾌락의 대상을 넘어 때로는 미적인 대상, 그 자체로까지 여겨지기도 하였다. 이로써 음식은 미식과 탐식의 대상이 되었고,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먹음은 미적인 체험 그 자체가 되었다.¹⁾

‘음식’과 ‘먹음’²⁾에 담긴 의미는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실 ‘음식’과 ‘먹음’은 해석이 필요한, 그러면서도 다양하게 해석될 가능성을 지닌 기호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것들은 생리적 차원을 넘어 심리적, 생태적, 경제적, 사회정치적, 문화적 과정들이 서로 엇갈리는 지점에 놓여 있다.³⁾ 따라서 ‘음식’과 ‘먹음’에 대한 이해는 인간과 삶, 인간이 만든 문화를 이해하는 것과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음식과 먹음이 이 시대의 화두가 된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과연 ‘음식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⁴⁾ 만큼 음식 이야기가 넘

1) 『미식예찬』(브리야 사바랭, 홍서연 옮김, 19쪽.)에 다음 구절이 이를 압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동물은 삼키고, 인간은 먹고, 영리한 자만이 즐기며 먹는 법을 안다.”

2) 이 글에서 ‘음식’과 ‘먹음’을 구분하는 것은 ‘음식’이 ‘물질로서 주어진 먹을거리’인 데 반해, ‘먹음’은 ‘주어진 것과는 달리 ‘의지적인 행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대해서는 2.1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3) 앨런 비어즈워스·테레사 케일, 박형신·정현주 옮김, 『메뉴의 사회학: 음식과 먹기 연구로의 초대』, 한울, 2010, 20~21쪽.

쳐나는 세상이 되었다. TV 방송만 보아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화계와 학계에서도 음식과 먹음에 관한 담론들이 쏟아져 나온다. 음식과 먹음은 이미 ‘뜨거운 이슈’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런 ‘음식의 시대’가 꼭 긍정적인 면만을 지닌 것은 아니다. 힌즈(E. Hinz)는 이런 현상을 두고 ‘집단적 집착(collective obsession)’이라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⁵⁾ 이런 맥락에서 음식과 먹음이 지닌 의미를 다양하게 살피고 해석하는 작업은 우리 삶을 성찰하는 뜻 깊은 일이기도 하다.

이 글은 고전시가, 특히 시조에서 음식이 소재로 쓰였거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작품 속에 드러난 음식과 먹음이 지닌 다양한 의미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음식 이념(Food Ideology)’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그것이 작품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아울러 음식과 먹음에 담긴 사회정치적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음식 또는 먹음에 관한 사고방식이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그 문화사적 맥락을 짚어내는 데에도 뚜렷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면⁶⁾, 이

4) 주영하, 『음식 전쟁 문화 전쟁』, 사계절, 2000, 4쪽.

5) “Although diet-conscious individuals may be found in any historical period or cultural context, today the concern with eating and drinking habits has become something of a collective obsession. Reflective of this situation is not only the way that ingestion has recently become a major concern of artists and scholars but also the way that their interest in the subject differs from that of the past.” (Evelyn J. Hinz, “Diet Consciousness and Current Literary Trends”, *Mosaic(Winnipeg)*, Summer-Fall, Vol.24(3-4), 1991, p.v.)

6) *Ibid.*, pp. v-vi. Hinz는 음식 인식이 현대 문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설명하면서, 그 연구 경향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먹기와 마시기에 관한 사고방식이 어떻게 문학작품의 비평적 수용과 그 해석에 영향을 주는가… 텍스트에 나타난 음식으로부터, 어떻게 그 문학 작품을 문화적 맥락 속에서 변치 않는 위치에 자리매김할 수

러한 연구를 통해 고전시가 텍스트를 문학사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사의 관점에서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음식 자체가 단순한 “... 영양적 측면을 넘어서 암묵적, 명시적 의미와 중요성을 지닌 문화적 객체”이기 때문이다.⁷⁾

고전시가에 나타난 음식과 먹음의 양상이나 의미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은 없는 듯하다. 다만 임재욱의 연구⁸⁾는 백석 시에 수용된 한국 고전시가의 전통을 거론하면서 백석 시에 나타난 소재로서의 음식이 지닌 의미를 사설시조를 비롯한 고전시가의 전통 속에서 이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백석 시에 나타난 음식이 지닌 의미가 우리 고전시가에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보고 그저 이를 확인하는 데 머물러⁹⁾ 우리 고전시가만의 의미를 찾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또한 백석이 고전시가의 전통을 그 스스로 의식하는 가운데 이를 주체적으로 수용했었는지 알 수 없는 터에 ‘백석 시에 수용된’이라고 말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고전시가 분야에서 이 같은 연구가 거의 없었던 것은 우선은 음식을 소재로 다룬 작품이 많지 않은 데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에는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일차적 욕망을 저급한 것으로 여겼다. 『논어』만 보아도 “군자는 배부름을 구하지 않아야 함(君子食無求飽)”과 “군자는 도를 추구해야 하지, 먹을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됨(君子謀道不謀

있는가... (how attitude toward eating and drinking can affect the critical reception of a literary work and its interpretation; ...how the presence of food or drink in a text invariably situates that work in a cultural context)”

7) 존 엘런, 윤태경 옮김, 『미각의 지배』, 미디어월, 2013, 6쪽.

8) 임재욱, 『백석 시에 수용된 한국 고전시가의 전통』, 『고전문학연구』 39집, 고전문학연구회, 2011, 67~102쪽.

9) 다음과 같은 구절을 예로 들 수 있다. “백석 시에서 음식이 지니는 의미는 우리의 고전시가에서도 두루 확인된다.”(위의 글, 87쪽.)

食)”을 강조하고 있다.¹⁰⁾ 이런 까닭에 먹고 마시는 일에 관한 기록을 적극적으로 남기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이를 꺼렸을 것이다. 안대회에 따르면, 이 같은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 미각에 관한 담론이 그나마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18세기는 되어야 가능했던 일이다.¹¹⁾ 이러한 경향은 중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음식이 영물시(詠物詩)의 소재로 주요하게 쓰이게 된 것은 당나라 이후의 일이지만,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송나라 때부터이다. 그나마 소식(蘇軾)과 같은 몇몇 작가에 국한된다.¹²⁾

이 연구는 시조 텍스트 속에서 음식과 먹음이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피고 처음으로 그 의미를 다각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닐 것이라 생각한다.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음식 이념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조 작품에 나타난 음식 이념의 양상을 살펴본다. 그리고 3장에서는 2장에서의 논의를 심화하여, 한국 시조 작품에 나타난 음식과 먹음이 특히 사회정치적 함의가 깊었음을 서술한다. 이 논의를 위해 고전시가 이외 영역에서 음식을 다룬 작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성과들¹³⁾을 참조한다.

10) 『논어』의 『학이(學而)』와 『위령공(衛靈公)』편에 각각 실려 있다.

11) 심노승(1762-1837)은 미식가이자 탐식가로서 다양한 음식을 즐기고 그 경험을 자세하게 기록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안대회, 『18·19세기의 음식취향과 미각에 관한 기록 - 沈魯崇의 『孝田散稿』와 『南遷日錄』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69집, 국학연구원, 2015, 170쪽.)

12) 정세진, 『소식 음식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23쪽. 송나라 시인 가운데 소식(蘇軾)은 음식시를 지은 시인으로는 독보적인 존재이다. 정세진에 따르면, 그는 음식을 직접 개발하여 만들어 먹었고 음식과 관련된 시문도 백 여 편에 이른다고 한다. 더구나 음식에 대해 말하고 글로 쓰는 것을 좋아해서 그 스스로 이를 ‘고황(膏肓)’이라고까지 말할 정도였다.

13)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정세진, 위의 글; 소래섭, 『백석 시에 나타난 음식의 의미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8; 유정선, 『화전가에 나타난 여성의 놀이 공간과 놀이적 성격 - ‘음식’과 ‘술’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8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57~83쪽; 류정일, 『조선초기 양반의 술 문화 - 조선 초기 잡록의 술 관련 일화

2. 음식 이념의 양상

2.1. 음식의 다양한 함의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은 먹어야 산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음식은 사람이 동물로서의 목숨을 이어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긴다(民以食爲天)¹⁴⁾’라는 말은 음식이 인간의 육체적 생존에 절대적인 것임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동물로서의 원초적 욕망에 닿아 있다. 그러므로 음식은 일차적으로 물질적, 동물적, 육체적 차원과 관련된다.

그러나 ‘음식’ 또는 ‘먹음’이 이런 일차적 차원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를 넘어서는, 술한 의미들이 가로지르는 지점에 놓여 있다. 따라서 하나의 텍스트 속에서도 그것은 서로 다른 의미망을 형성하며 서로 다른 담론의 층위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시조 텍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청구영언(진본)』을 중심으로 볼 때, 음식이 소재로나 주제와 밀접한 대상으로 드러난 작품은 대략 80여 편이 된다. 시조 작품에 나타나는 음식의 종류는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다. 작품 속에 제시된 음식으로는 ‘밥’, ‘술’, ‘안주’, ‘물고기’, ‘고사리’, ‘조홍감’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그 가운데 술이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한다.

이들 여러 시조 작품들 속에서 음식과 먹음이 지닌 의미는 정말 다양하게 나타난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그 몇 가지를 살펴본다. 다음 작품을 보자.

를 중심으로, 『동방학』 19집, 동양고전연구소, 2010, 335~364쪽; 안대회, 앞의 글.

14) 『한서(漢書)』, 『역이기전(酈食其傳)』: “王者以民爲天, 而民以食爲天”

首陽山 必라보며 夷齊를 恨하노라
주려 주글진들 採薇도 恨는 것가
비록에 푸새엿 거신들 그 님 짜해 닳드니

- 성삼문, 『청구영언(진본)』 015.

이 작품에서 화자는, 주숙(周粟) 곧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으려고 수양산으로 숨어 들어가서는 고사리를 캐어 먹고 살다 결국 굶어죽고만 백이와 숙제를 닮고 있다. 백이와 숙제는 전 왕조에 대해 절의를 지킨 ‘의로운 사람(義人)’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화자가 보기에 이들은 절의를 지킴에 도리어 철저히 못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천하가 이미 주나라 무왕의 것이 된 마당에 수양산 또한 주나라 땅이며 그 산에서 자란 고사리 역시 ‘주나라의 곡식’이 아닐 수 없으니, 결국 그들 형제는 주나라를 부정하면서도 주나라의 곡식을 먹는 모순을 드러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백이와 숙제, 그리고 이들을 비난하는 화자가 모두 음식과 먹음을 인식하는 데에서 서로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주나라 곡식을 먹지 않으려고 수양산에 숨어 든 백이와 숙제나, 이들이 수양산의 고사리를 먹음으로써 주나라 곡식을 끝내 거부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는 시의 화자나 ‘주나라 곡식 먹기’라는 단순한 먹음의 행위를 ‘주나라의 백성 되기’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주나라 곡식 먹기’를 음식의 물질적 속성을 흡수하는 것이 아닌, 그 음식에 내포된 사회정치적 속성을 흡수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이들 논리의 밑바탕에는 음식 또는 먹음이 개인의 사회정치적 정체성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 점은 아래 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楚江 漁夫들아 고기 낚가 습지 마라
 屈三閭 忠魂이 魚腹裏에 드릿느니
 아쁘리 鼎鑊에 슬믈들 變홀 줄이 이시라

- 『청구영언(진본)』 388.

시의 화자는 ‘초강 어부들’에게 그 강에서 물고기를 낚지 말라고, 삶아 먹지 말라고 권한다. 왜냐하면 작품 속의 ‘고기’는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라, 굴원의 충혼을 그 뱃속에 담고 있는, 그야말로 그 자체가 ‘충혼의 화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굴원의 충혼이 그 뱃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른바 충신인 굴원의 살을 먹고 자란 물고기가 굴원의 충혼을 흡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적어도 작품의 화자에게는 어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물질로서의 음식이 아닌, 그 정신적 속성을 흡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¹⁵⁾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측면에서도 우리의 본성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¹⁶⁾ 이 때문에 음식과 먹음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바랭(B. Savarin)이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 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¹⁷⁾라고 한 말에나 래퍼포트(L. Rappoport)가 “음식은 곧 당신이다(You are what you eat).”¹⁸⁾라고 말한 것에는 ‘무슨 음식을 먹느냐’에

15) 단약(丹藥)을 먹음으로써 신선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도사(道士)들에게도 단약은 결코 단순한 물질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신적인 속성을 지닌 ‘약’ 이상의 것이었다.

16) 마이클 폴란은 『잡식동물의 딜레마』(조운정 역, 『잡식동물의 딜레마(The Omnivore's Dilemma)』, 다룬세상, 2008, 21쪽.)에서 사람의 잡식성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에 따르면, 심지어 인간의 윤리적 규범이나 의례 등도 이러한 잡식성과 무관하지 않다.

17) 브리아 사바랭, 앞의 책, 19쪽.

18) Leon Rappoport, *How We Eat : Appetite, Culture, and the Psychology of Food*, Toronto : ECW Press, 2003, p.51. 이 책의 번역본으로 『음식의 심리학』(김용환 옮김, 인북스, 2006)이 있지만, 이 책은 번역 자체에 오류가 없지 않은 것 같고, 더구나 원문에

따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시조 작품에 나타난 음식과 먹음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긴밀하게 연관된다. 그런데 때로는 이에서 더 나아가 집단적 정체성과도 관련된다. 예를 들어, 정철의 <훈민가>만 해도 여러 음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음식과 먹음은 주로 윤리와 도덕, 공동체 의식과 관련된 층위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다음 작품을 보자.

어와 저 族下야 밥 업시 엇지홀고
 어와 저 아자바 옷 업시 엇지홀고
 머흔 일 다 닐러스라 돌보고자 호노라

- 정철, <훈민가>, 『청구영언(진본)』 049.

이 작품에서 ‘밥’은 당연히 육체적 생존에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다. 시의 화자는 친척들끼리 서로 ‘밥’을 나누어 먹으며 돌보겠다고 얘기한다. 여기에서 ‘밥’, 또는 ‘음식 나누어 먹기’는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부조(扶助)’ 행위로, 공동체의식 회복의 실마리가 된다. 음식을 함께 나누어먹는 것은 “집단적 결속(communal ties)을 받아들이고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다.¹⁹⁾

그런데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뜻인데, ‘같은 음식’이야말로 어떤 한 집단과 다른 집단을 구별하는 결정적 표지가 된다.²⁰⁾ 따라서 이처럼 ‘음식 나누어 먹기’는 공동체 의식(儀式)에

있는 내용들이 번역 과정에서 빠지거나 순서가 뒤바뀐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신뢰하기 어렵다. 그래서 글쓴이는 원서를 참조하여 번역을 새로 한다.

19) *Ibid.*, p.34. “Conversely, it is through the sharing of food that people demonstrate their support and acceptance of communal ties.”

20) 예를 들어, 구약 성경 『레위기』에는 ‘먹을 수 있는 것들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의 목록이 정말 지루할 정도로 자세히 적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된 음식

서 빠질 수 없다. 집단 구성원으로 하여금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자연스럽게 공동체의식을 갖게 하는 데 이처럼 적합한 것이 때문이다. 래퍼포트는 이렇게 말한다.

“좋은 삶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먹는 방식은 우리가 누구인가 혹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문제와 밀접히 결부된다. 우리는 종종 음식을 통해서 자아를 개인적으로 구현하거나 공적으로 나타내려고 한다. 개인의 성격이나 사회적 정체성과 관련한 음식의 소비는 도처에서 발견된다.”²¹⁾

다음 작품에 나타난 향음주(鄉飲酒) 예식은 ‘어른 모시기[敬長]’의 한 예를 보여주는 것인데 공동체의식 함양과 직결되는 것이다.

풀목 쥐시거든 두 손으로 바치리라
나갈 뉘 계시거든 막대 들고 조츠리라
鄉飲酒 다罷訖 後에 되셔가려 호노라

- 정철, <훈민가>, 『청구영언(진본)』 047.

지금까지 시조 작품에 나타난 음식과 먹음을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과 관련지어 논의했다. 그러한 한편으로 음식은 그리움을 일깨우거나 사랑을 드러내는 매개물이 되기도 한다. 다음 작품들을 보자.

금기는 음식과 먹음이 개인적 정체성과 함께 집단적 정체성과 연결된 것임을 말해 준다. 당연히 이런 음식 금기는 유대 민족이 다른 민족과는 달리 ‘선택 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選民意識)과 직결되어 있다.

21) Leon Rappoport, *op. cit.*, p.51. “LIKE IT OR NOT, the way we eat is closely related to who we are or want to become. In effect, it is the personal and public presentation of self through food because, when it comes to personality, the uses of food are ubiquitous and often paradoxical, in the sense of being both inner and outer directed.”

盤中 早紅감이 고와도 보이느다
柚子 | 아니라도 품엄즉 흐다마는
품어가 반기 리 업슬식 글로 설위흐느이다

- 박인로, 『청구영언(진본)』 096.

겨월 날 다스흔 벗출 님 계신 디 비최고자
봄 미나리 살진 마슬 님의게 드리고자
님이야 무서시 업스리마는 내 못 니저 흐노라

- 『청구영언(진본)』 428.

096 작품의 화자는 조홍감을 보고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며 그리워한다. 428 작품의 화자는 봄 미나리의 살진 맛을 님에게도 알려주고 싶지만, 님이 부재한 현실에서 님을 잊지 못해 마음이 괴롭다. 이들 작품에서 음식이 그리움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물로 쓰이고 있음은 분명하다.

書房님 病 들어두고 쓸 것 업서
鍾樓 저지 달터 파라 비 스고 감 스고 榴子 스고 石榴 샅다 아츰아츰
이저고 五花糖을 니저 발여고즈
水朴에 술 쏘즈 노코 한숨계워 흐노라

- 김수장, 『해동가요(주씨본)』 540.

사설시조 540 작품의 여성 화자는 저자에 가서 자신의 다리[月乃]를 팔아서 여러 가지 음식을 사와서 병든 남편에게 먹일 과일 화채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에 꼭 필요한 오화당을 잊어버리고 사오지 않은 것을 못내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거론된 여러 가지 음식들은 다리를 팔아 사온 것으로 남편에 대한 화자의 희생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지극한 정성과 사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2. 세 가지 음식 이념

그런데 여기에서 ‘음식’과 ‘먹음’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음식’은 ‘먹음’을 전제하는 것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음식’에 더해 ‘먹음’이라는 좀 더 ‘적극적’인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동물과 달리, 때로 먹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종교적 단식이나 거식증이 그렇다. 동물도 사람처럼 음식을 먹지만, 음식뿐만 아니라 ‘먹음’과 ‘먹힘’을 정확하게 인식하며 먹는 존재는 사람이 유일하다. 사람만이 먹기를 거부한다.²²⁾ 이로 보면, ‘먹음’은 물론 ‘먹지 않음’에도 ‘관념’ 또는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²³⁾ 다시 말하면, 음식이라는 물질과 먹음이라는 행위에 앞서 관념과 인식의 문제가 있다.²⁴⁾ 따라서 바로 이 지점에서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차원에서의 음식과 먹음을 넘어서는 사유가 필요하게 된다.

앞 장에서도 말했듯이, 이처럼 다양한 의미들로 이루어진 음식과 먹음은 그 자체가 해석을 기다리는 하나의 기호이다. 힌즈(E. Hinz)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먹기와 마시기는 그 자체로 정교하고 복잡한 기호 언어를 구성하는데, 이러한 언어는 담론과 인간 경험의 모든 측면을 환유적으로 일괄하고 형성

22) 이런 맥락에서, 만일 ‘먹는다, 그러므로 존재한다(Je mange, donc Je suis)’라는 명제가 가능하다면, ‘먹지 않는다, 고로 존재한다(Je ne mange pas, donc Je suis.)’라는 명제도 가능할 것이다. 아니, 오히려 이 진술이야말로 인간의 실존을 설명하는 데 더 없이 잘 어울리는 명제가 아닐 수 없다.

23) 예를 들어, 개고기 먹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행위를 ‘야만적’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한다. 이슬람에서 돼지고기를 금기로 여기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24) “알든 모르든, 우리는 먹을 때 음식만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에 담긴 관념도 함께 소비하는 것이다.” (Leon Rappoport, *op. cit.*, p.39.)

한다.”²⁵⁾

이에 따르면, 먹음은 우리의 경험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담론의 전체 국면을 하나의 범주로 묶음으로서 어떤 특성을 부여하는 언어 기호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결국 ‘음식’이나 ‘먹음’이라는 기호 언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삶의 경험과 담론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음식과 먹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음식 인식(Diet Consciousness)’이다. 그런데 그는 그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글에 나온 대로 그 의미를 ‘먹기와 마시기에 관한 사고방식(attitude toward eating and drinking)’ 정도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²⁶⁾

음식 인식의 개념은 오히려 심리학자인 래퍼포트(Leon Rappoport)의 저서를 참조하는 편이 좋다. 그는 ‘음식 이념(food ideology)’²⁷⁾라는 말로 이를 정의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부가 아니라면, 음식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과 우리가 그것에 관련되는 방식의 대부분은 세 가지 서로 뚜렷이 구분되는 음식 이념 가운데 어느 하나 이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공산주의나 파시즘 같은 정치 이념들처럼, 음식 이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들이 관심 갖는 주제에 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설득하고자 한다. … 어디에나, 사

25) Evelyn J. Hinz, *op. cit.*, p.5. “Instead, the focus is now on how eating and drinking in themselves constitute an elaborate and complex sign language which metonymically brackets and informs all aspects of discourse and human experience.”

26) *Loc. Cit.*.

27) 소래섭은 리언 래퍼포트의 세 가지 음식 이념 개념을 빌려 쓰면서도 이를 ‘음식 이념’이라고 하지 않고, 별 설명 없이 Hinz가 말한 ‘음식 인식(Diet Consciousness)’이란 용어를 쓰고 있어서 읽는 이들에게 혼란을 준다.(소래섭, 앞의 글, 34쪽.) 글쓴이는 음식과 먹음에 내포된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한결 분명히 하기 위해 래퍼포트의 용어를 그대로 쓴다.

람들의 집단 안에서 음식에 관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어떻게 해서든, 쾌락주의, 영양주의, 영성주의에 영향을 받는다. ... 좀 더 명확히 말하면, 우리가 음식에 부여하는 의미의 많은 부분들은 주로 이 같은 세 가지 이념들의 조합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⁸⁾

그에 따르면, 쾌락주의(hedonism)는 감각적 쾌락, 영양주의(nutritionism)는 건강과 영양 가치를, 영성주의(spiritualism)는 도덕이나 형이상학적 가치를 중시하고 지향하는 이념이다. 이런 점에서 쾌락주의는 ‘본능적 충동(id)’, 영양주의의 관심은 ‘자아(ego)’, 영성주의에 담긴 영성적, 종교적, 도덕적 의미는 ‘초자아(superego)’와 관련된다.²⁹⁾ 이 같은 정의에 따르면, 음식 이념은 정치 이념들처럼 강력하게 음식 또는 먹음과 관련한 우리의 사고와 생활 방식을 실제로 지배한다.

이제 이 세 가지 음식 이념이 각 작품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양상을 살펴본다. 맨 먼저 음식과 먹음에서 영성주의가 엿보이는 작품을 살펴보자.

시가에 음식이 등장한 예는 『시경』에서 찾을 수 있다. 『大雅·生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짚고 빵고 해서, 불리고 비비고 한 뒤, 설설 그것을 일어, 푹 그것을 쪄놓고 ... 고기를 지지고 구워 올리며 내년의 풍년

28) “MOST, IF NOT ALL, of our common knowledge about food and the ways we relate to it is dictated by one or more of three distinctively different food ideologies. Like political ideologies (Communism, Fascism), food ideologies influence how we think, and try to persuade us how we ought to think, about their subject matter ... It proposes that everywhere, and in all human groups, our thinking and behaviors about food are in one way or another dictated by the ideologies of hedonism, nutritionism, and spiritualism ... More specifically, I will argue that much of the meaning we attribute to food can to a large extent be understood as emerging from the meeting of these three ideologies.” (Leon Rappoport, *op. cit.*, pp.107~108.)

29) *Ibid.*, p.109.

을 비셨다네(或春或揄, 或簸或蹂. 釋之叟叟, 烝之浮浮. … 載燔載烈, 以興嗣歲)”³⁰⁾ 이 작품에 나온 음식은 기본적으로 하늘에 풍년을 비는 제사에 쓰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의 음식은 쾌락이나 영양, 건강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제의적이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거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작품에서도 이와 비슷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臺 우회 씻는 느티 몇 히나 즈랏는고
 뼈지여 난 휘추리 저긋치 늑도록애
 그제야 또 혼 췌 부어 다시 獻壽히리라

- 정철, 『청구영언(진본)』 073.

이 작품의 화자는 느티나무의 장수를 기원하면서 나무에 한 잔 술을 올린다. 실제 현실에서 술 한 잔에 나무의 수명이 달라질 리 없음을 생각하면, 장수를 기원하며 술잔을 올리는 ‘헌수(獻壽)’는 역시 제의적이고 주술적인, 그래서 신비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음식이나 먹음이 제의적인 상황에서 등장하고 신비주의와 닿아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음식 이념을 영성주의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이 사며니즘이나 불교, 유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그래서 “너무나 종교적인”이라는 지적³¹⁾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성주의라는 음식 이념이 꼭 종교적 차원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이념적이고 윤리적인, 정신적인 차원과 관련 될 때가 훨씬 많다. 아래 319번 작품에서의 ‘탁주’와 ‘산채’는 소박한 삶을 노래한 것으로 안빈낙도(安貧樂道)라는, 현실을 넘어서는 초월적 가치와 관련되어 있다. 작품 228에서 ‘고사리’는 먹음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보다는 ‘굽은 물

30) 김학주 역, 『시경선(詩經選)』, 명문당, 2003, 280쪽.

31) 주영하, 앞의 책, 287쪽.

성'을 지닌, 교화의 대상이자 이념적 실체로서 나타난다.

집 方席 내지 마라 落葉넨들 못 안즈라
술불 혀지 마라 어제 진 돌 도다온다
이히야 濁酒山菜 글 만경 업다 말고 내여라 - 『청구영언(진본)』 319.

주려 주그려 호고 首陽山에 드럿거니
헌마 고사리를 머그려 키야시라
物性이 구븐 즐 띄워 펴보려고 키미라
- 주의식, 『청구영언(진본)』 228.

이제 쾌락주의의 음식 이념이 드러난 작품들을 살펴보자.

오려 고개 속고 열무우 술젓논디
낙시에 고기 물고 게논 어이 느리논고
아마도 農家에 물근 맛시 이 죠흔가 호노라 - 『청구영언(진본)』 325.

묵은 히 보니올 제 시름 한디 餞送호시
흰 골무 콩 인절미 자치 술국 按酒에 庚申을 시오랄 제
이옥고 粢米僧 도라가니 식히런가 호노라
- 이정신, 『가곡원류(국악원본)』 493.

崔行首 쪽달힘 호새 趙同甲 곱달힘 호새
들뽕 게뽕 오려 點心 날 시기소
每日에 이령성 굴면 므슴 시름 이시라
- 김광옥, <울리유곡>, 『청구영언(진본)』 162.

이들 작품에는 여러 가지 음식이 나열되어 있다. 작품 325에는 ‘올벼’와 ‘열무’, ‘물고기’, ‘게’가, 『가곡원류』 493 작품에는 ‘흰 골무떡’, ‘콩 인절미’,

올벼의 하나인 ‘자채(紫彩), ‘술국’이, 작품 162에는 ‘쭈달임’, ‘꽃달임’, ‘닭찜’, ‘게찜’, ‘올벼로 지은 밥’이 나온다. 이처럼 다양한 음식이 열거된 시적 상황은 그 자체로 이미 풍성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위 세 작품 가운데 첫 작품에는 ‘농가의 맑은 맛’이라 하여 음식을 통해 맛과 미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다. 한 편 두 번째 작품에는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여 이를 먹으면서 목은해 마지막 밤을 보내는 정경을 들뜬 분위기 속에 그리고 있다. 세 번째 작품 역시 맛있는 여러 음식을 준비하여 벗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시름없는 삶을 염원하고 있다. 이들 작품에는 모두 맛과 즐거운 분위기가 강조된 쾌락주의의 음식 이념이 엿보인다.

그런데 아래 작품들처럼 음식으로 술이 등장할 때에는 쾌락 지향이 한 층 더 강렬하게 표현된다.

金樽에 2득흔 술을 슬커장 거후르고

醉흔 後 긴 노래에 즐거오미 그지 업다

어즈버 夕陽이 盡타마라 돌이 조차 오노매

- 정두경, 『청구영언(진본)』 166.

어우하 날 죽거든 독 밧춰 집 東山에 무더

白骨이 塵土 | 도여 酒樽이나 밍글고자

平生에 덜 먹은 맛술 다시 다마 보리라

- 『청구영언(진본)』 410.

작품 166의 화자는 ‘금준’, 곧 금으로 만든 술통에 가득 든 술을 취할 때까지 마음껏 마신 다음에 긴 노래를 부르며 스스로 크나큰 즐거움에 빠져 든다. 말 그대로 ‘취흥(醉興)’이자 ‘취락(醉樂)’이다. 410의 화자는 자신이 죽으면 독 만드는 집의 동산에 묻어달라고 말한다. 죽은 몸이 다 썩고 백골마저도 흙이 된다면, 독 만드는 이가 그 흙으로 술통을 만들 터이니, 결국 죽어서 술통으로 변신은 자신은 살아서 못 다 먹은 술을 다시 먹

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술 마시기를 이처럼 열망하는 화자는 정말 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작품이 지닌 해학성이 도드라진다.

사실 이런 작품에서 술은 단순한 소재로서의 구실에 끝나지 않는다. ‘술에 취해 사는 삶’ 그 자체를 긍정하고 주제로 부각시키는 핵심적인 장치가 된다. 그런데 유념해야 할 점은 쾌락주의 음식 이념이 나타난 시조 작품이라 할지라도 쾌락 추구가 극단적인 데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낙이불음(樂而不淫)’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작품 325의 ‘농가의 맑은 맛’이란 구절의 ‘맑은’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작품 속에 나타난 음식, 또는 먹음이 화려한 미식 추구나 탐식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농가의 소박한 삶이 강하게 느껴진다.

세 번째, 음식 이념으로서 영양주의가 드러난 작품을 살펴본다. 여기에는 건강, 또는 영양과 관련되어 음식과 먹음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老人이 섭홀지고 怨호느니 燧人氏를
 食木實 호을 제도 萬八千歲를 호엿거든
 엇디트 教人 火食호야 後生을 困케 호시노

- 『가곡원류(국악원본)』 570.

이 작품의 화자인 ‘노인’은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화식(火食)을 가르쳤다는 ‘수인씨’를 원망하고 있다. 그 탓에 자신을 포함해서 후세 사람들이 땀나무 하느라 ‘섰을 지는’ 육체노동에 시달려 늘 피곤하게 살아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의 원망은 우선 ‘화식으로 인한 노동량 증가와 피폐한 삶’ 때문이다. 그런데 화식 이전에 나무 열매만 먹었을 때에 비해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짧아졌다고 노인이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수인씨를 원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음식 또는 먹음의 문제를 달리 인식한 데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화자가 화식의 문제를 제기

하는 지점이 수명, 또는 건강을 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작품 속에 나타난 음식 이념이 양생(養生), 또는 건강의 측면을 중시하는 영양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양주의 음식 이념이 나타나는 작품은 시조에서는 좀처럼 찾기 힘들다. 아마도 영양주의가 영향을 크게 미치기 시작한 것은 근대에 들어서면서 서부터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³²⁾

3. 음식에 담긴 사회정치적 함의

지금까지는 고전시가, 특히 시조 작품에 나타난 음식과 먹음이 지닌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는 데 서술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 시가에 나타난 음식 이념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조금 특이하다.

첫째, 음식이 특히 술인 경우에는 음식과 먹음이 세사(世事)의 번답함을 피하고 시름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띠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색(女色)이 포함된 유흥의 분위기 속에 놓이면서 욕망 일반의 긍정으로 확대된다.

둘째, 래퍼포트가 얘기했던 세 가지 음식 이념 가운데 특이하게 우리 시가에서는 쾌락 지향과 이념 지향이 뒤섞여 나타나는 작품들이 더러 있다.

셋째, 음식이나 먹음을 통해 화자 자신의 사회정치적 지향, 또는 실제 현실을 겨냥한 정치 이념적 지향을 드러내는 작품이 아주 많다. 이는 래퍼포트가 얘기했던 세 가지 음식 이념과는 조금 다른 층위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시가 작품 속에서 음식이나 먹음은 쾌락주의나 영양주의, 영성주의 어느 하나에 포섭되기 어려운 함의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32) 소래섭, 앞의 책, 35쪽.

이제 이 몇 가지 특이점과 관련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1. 세사(世事) 회피와 욕망의 긍정

음식과 먹음의 의미가 번답한 세상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며 사람살이의 시름을 풀려는 것과 관련되는 때는 작품 속 음식으로 주로 술이 등장한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음식으로 술이 소재로 쓰인 작품은 압도적으로 많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내내 금주령이 강력하게 시행되었음³³⁾을 생각할 때,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이렇듯 ‘술’을 다룬 작품이 상당히 많은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다음 작품들을 보자.

이성정성 다 지내고 호롱하롱 인 일업니
 功名도 어근버근 世事도 싱숭상숭
 毎日에 흥 췌 두 췌하여 이렇저렇 흐리라 - 『청구영언(진본)』 329.

술을 내 즐기더냐 狂藥인줄 알건마는
 一寸肝腸에 萬斛愁 너허두고
 醉하여 잠든 덧이나 시름 닛자 흐노라 - 『청구영언(진본)』 336.

술 먹고 노는 일을 나도 윈 줄 알건마는
 信陵君 무덤 우희 밧 가는 줄 못 보신가
 百年이 亦草草하니 아니 놀고 엇지흐리
 - 申欽, 『청구영언(진본)』 125.

33) 강명관, 『조선의 뒷골목 풍경』, 푸른역사, 2004, 118~138쪽. 조선시대에는 수시로 금주령이 내려져 개인의 음주가 금지되었다. 술 만드는 데 식량인 곡물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영조 때에는 금주령을 어긴 사람에게 참형을 내릴 정도로 가혹했다. 물론 지배세력인 양반들은 금주령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다.

아래 작품 329의 화자는 공명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매일을 술을 마시는 재미로 산다. 이는 싱숭생숭하게 돌아가는 세상일에 마음을 두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336의 화자는 술을 즐기지도 않고 더구나 그것이 ‘狂藥’인줄 알면서도 짧게 잠든 순간이나마 시름을 잊고자 애를 쓴다. 125의 화자 역시 ‘술 먹고 노는 일’이 옳지 못한 일인 줄 알면서도 인생이 무상함을 깨닫고는 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이들 작품에서 시의 화자가 취흥(醉興)을 추구하고자 하더라도 그것은 즐거움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인생의 갖가지 시름을 잊고 인생이 무상함을 절감하기 때문이다. 먹고 취하지는 단순한 쾌락주의와는 구별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 시가에 많이 나타나는 ‘술’은 일종의 ‘위안 음식(comfort food)’으로서의 이미지를 이룬다. 그것은 “우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위안을 주는 음식”³⁴⁾이다.

한편으로 술은 화자의 소박한 삶을 드러내면서 안빈과 지족에 귀결되는 탈속의 의미를 갖는다. 이 뿐만 아니라, 화자는 자신이 사는 시대가 태평성대임을 말하기 위해 술을 마시기도 하며, 백성들과 더불어 취하고 싶다는 말로 이들에게 고루 혜택을 주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술은 일정하게 사회정치적으로 긍정적인 함의를 띠기도 한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그런데 술이 여색과 더불어 음악과 춤이 있는 유희의 분위기 속에 놓이게 되면서, 음주는 단순한 미각적 쾌락을 넘어서 욕망 일반의 긍정과 통하게 된다. 말하자면 이런 시에서는 쾌락 지향과 욕망 표출이 강하게 드러난다. 특히 작품 509의 화자는 주색을 삼가란 옛사람의 경계를 알면서도 흥이 오를 때 술을, 외로울 때는 여색을 가까이하지 않을 수 없다고 술

34) Leon Rappoport, *op. cit.*, p.58. “... to deal with emotional depressions by treating themselves to comfort foods.”

직하게 털어놓는다.

酒色을 삼가란 말이 넷 사름의 警誠로되
 踏靑 登高節에 벗님니 드리고 詩句를 읊플 제 滿樽香醪를 아니 醉키 어
 리오며
 旅館에 寒燈을 對호여 獨不眠홀 제 玉人을 만나서 아니 자고 어이라
 - 『청구영언(진본)』 509.

寒松亭 자긴 술 버혀 조고만 비 무어토고
 술이라 안쥬 거문고 伽倻入고 奚琴 琵琶 笛 觥 杖鼓 舞鼓 工人과 安岩
 山 츠돌 一番 부쇠 나전대 귀지삼이 江陵女妓 三陟 쥬탕년 다 몰속 싣고
 들 불근 밤의 鏡浦臺에 가서
 大醉코 扣榭乘流호여 叢石亭 金蘭窟과 永郎湖 仙遊潭에 任去來를 호
 리라
 - 『청구영언(진본)』 571.

위 571 작품처럼 술이 음악, 여색을 포함한 질탕한 분위기 속에서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쾌락 지향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이는 사설시조에서 비교적 자주 볼 수 있는 바, 정과 욕을 긍정하는 사설시조의 시학과 일정하게 통한다고 볼 수 있다.

허균이 『도문대작인』에서 밝혔듯이, ‘먹음’은 여전히 ‘사람의 본성’으로 ‘생명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긍정된다. 그런데 적어도 허균에게는 먹음이 성욕과 마찬가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³⁵⁾ 이는 달리 말하면, 음식과 먹음을 긍정하는 가운데 성욕과 같은 인간의 정

35) 허균, 『屠門大嚼引』, 『惺所覆瓿藁』 권25. “먹는 것과 성욕은 사람의 본성이다. 더구나 먹는 것은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다. 선현들이, 먹는 것을 바치는 자를 천하게 여겼지만, 그것은 먹는 것만을 탐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를 지적한 것이지 어떻게 먹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것이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팔진미의 등급을 《예경(禮經)》에 기록했으며, 맹자가 생선과 웅장(熊掌)의 구분을 했겠는가.”

육 또한 ‘생명에 관계되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긍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음식과 먹음에 관한 사유가 기본적으로 사회정치적인 것이면서도 시대적 의미를 띠게 됨을 알 수 있다.

3.2. 쾌락 지향과 이념 지향의 섞여들

리언 래퍼포트에 따르면, 음식 이념 가운데 영양주의는 쾌락주의와 결합하기도 하고 영성주의와 결합하기도 하지만 쾌락주의와 영성주의는 서로 그렇게 결합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듯이, 영성주의는 육신이 쾌락에 빠지는 것을 죄악시하며 절제와 금욕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영성주의와 쾌락주의는 서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³⁶⁾

그러나 우리 고전시가 경우에는 쾌락주의가 영성주의와 서로 절묘하게 섞여드는 경우가 있어서 리언 래퍼포트가 주장한 것과는 달리 이들 음식 이념의 분리를 말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이 아주 큰 특징이다. 예를 들면, 시조 작품에는 ‘미각을 강조한 쾌락주의와 이념적·정신적 지향을 내보이는 영성주의가 쉽게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다음 작품들을 보자.

덜가마 조히 식고 바회 아래 심물 기러
 꽃죽 들게 뿌고 저리지이 쓰어내니
 世上에 이 두 마시야 늬이 알가 호노라

- 김광옥, <울리유곡>, 『청구영언(진본)』 150.

엇그제 덜핀 술을 질동희에 가득 붓고
 설 데친 무우남을 淸芻醬 찌쳐넌이
 世上에 肉食者들이 잇 맛슬 어이 알리오

- 김천택, 『해동가요(주씨본)』 430.

36) Leon Rappoport, *op. cit.*, pp.107~119.

작품 150의 화자는 깨끗하게 씻은 질가마에 샘물을 부어 팔죽을 달게 쭈어내고 곁절이를 곁들여 먹는다. 그러면서 그는 팔죽과 곁절이의 ‘이 두 맛이야 남이 알까 하노라’ 하면서 자신이 먹는 음식이 특별한 맛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해동가요(주씨본)』 430 작품의 화자 또한 질동이에 가득 담긴 술을 마시며 청국장을 끼얹은 무나물을 맛있게 먹는다. 그러면서 그 맛이 ‘육식자들은 알 수 없는 맛’이라고 표현한다. 이 두 작품을 보면, 적어도 곁으로는 미각의 즐거움을 노래한 쾌락주의 음식 이념에 더 가까운 것 같다.

그러나 다시 읽으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의미로도 읽힐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우선 150 작품의 ‘팔죽’과 ‘곁절이’가, 430 작품의 ‘덜 권 술’과 ‘설테친 무나물’이 사치와는 거리가 먼 음식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아도 맛있는 음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질동이에 담겨 있는, 제대로 발효가 안 된 ‘덜 권 술’과 제대로 데치지 않아 입 안에서 서걱거릴 ‘무나물’, ‘청국장’ 안주는 ‘박주산채(薄酒山菜)’마냥 거칠고 소박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육식’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런데도 이들 음식이 고기보다 더 맛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맛 이전에 관념과 관련된 또 다른 층위를 생각해 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결국 이들 작품이 ‘맛’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것은 ‘안분(安分)’과 ‘지족(知足)’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들 작품은 쾌락주의 음식 이념보다는 이념과 정신이라는 초월적 가치를 지향하는 영성주의에 더 가까운 것처럼 보인다. 결국 이들 작품 안에서 ‘맛’이라는 쾌락적 지향과 ‘안분과 지족’이라는 이념적 지향이 서로 배치되거나 구별되지 않고 적절하게 섞여 들어 있다는 점이 아주 독특하다.

이처럼 음식과 먹음의 함의 속에 쾌락 지향과 이념 지향이 적절하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쾌락주의에 대한 경계가 자리를 잡고 있다. “선비는 도에 뜻을 두었으니,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되며(士志於道, 而恥惡衣惡食者, 未足與議也)” 오히려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팔을 굽혀 베개 삼고 있어도 즐거움은 그 가운데 있(飯蔬食飲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³⁷⁾

3.3. 음식, 이념 구현의 매개물

음식과 먹음이 드러난 시조 작품 가운데에는 ‘음식’이라는 물질과 ‘먹음’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행위를 다루면서도 이를 관념을 표백하는 매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작품들은 강호가도와 같은 사대부 시조가 지닌 관념적 지향과 아주 비슷한 면을 지닌다. 앞 절에서 살펴본 대로, 음식과 먹음 속에 쾌락 지향과 이념 지향이 섞여드는 경우가 그렇다.

따라서 이들 작품에 나타난 음식 이념을 쾌락주의나 영성주의 어느 한 가지로 말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유교적 이념에 담긴 정신적 지향은 분명히 쾌락주의와 구분되지만, 그렇다고 현실 초월로만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강호가도에서 잘 나타나듯이 그것은 탈속의 강호 속에서 ‘수기(修己)’를 지향하면서도 세상을 향한 ‘치인(治人)’을 결코 잊지 않기 때문이다.

쾌락 지향과 이념 지향과 같이 서로 상반된 가치가 서로 섞여들면서 적절한 긴장과 균형을 이루는 것은 어쩌면 우리 고전시가가 공통적으로 지니는 특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만항청류 사설시조에 나타난 “욕망과 교화의 교차”³⁸⁾와 일맥이 통한다. 음식 이념에서 쾌락 지향의 ‘욕망’과 이념 지향의 ‘교화’가 서로 적절하게 섞여들면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러한 특성은 래퍼포트의 세 가지 음식 이념으로 쉽게 설명되지는 않는다. 물론 그가 세 가지 음식 이념과는 또 다른,

37) 이들 구절은 『논어』 「里仁」과 「述而」에 각각 나온다.

38) 조성진, 『蔓橫淸類와 明代 樂府民歌 비교 연구 - 馮夢龍의 『掛枝兒』·『山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31쪽.

그러나 똑같은 층위로 “특정한 음식이 사회정치적 이념(social or political ideologies)의 도구나 상징으로 작용할 때”를 상정하고는 있지만³⁹⁾, 그 ‘특정한 음식’이 가리키는 것은 햄버거나 콜라 같은 미국의 패스트푸드에 국한될 뿐이다.

따라서 우리 고전시가에 나타난 음식과 먹음의 의미를 고찰하는 이 글에서는 래퍼포트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음식 이념’이란 말을 사회정치적 측면에서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쓰고자 한다. 말하자면, 술을 포함한 음식이 소재로 쓰인 여러 작품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정치 현실에 대한 실제 관심의 표현이자 이를 통한 이념의 현실적 구현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여러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음식과 먹음이 구체적인 현실 사회적, 정치적 맥락과 관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 작품은 대체로 이념 지향이 매우 강하다. 그 몇 가지 경우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음식과 먹음이 공동체의식과 결부되어 윤리적 규범의 실천을 의미한다는 점은 정철의 <훈민가>에서 잘 드러난다. 앞서서도 인용했던 아래 작품은 향음주라는 예식을 통해 어른을 공경하는 예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풀목 쥐시거든 두 손으로 바치리라

39) Leon Rappoport, *op. cit.*, p.125. “그러나 음식과 관련된 이들 본질적인 의미들에 더하여, 음식이 의심할 여지없는 이념의 실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똑같이 추상적인 층위가 존재한다. 이는 특정한 음식이 사회 정치적 이념의 도구나 상징으로 작용할 때에 나타난다(But over and above these intrinsic meanings associated with food, there is another, equally abstract, level at which food can be understood as an unmistakable embodiment of ideology. This occurs whenever specific foods serve, either by design or chance, as instruments or symbols of social or political ideologies).”

나갈 디 계시거든 막대 들고 조츠리라
鄉飲酒 다罷흔 後에 되셔가려 흐노라

- 정철, <훈민가>, 『청구영언(진본)』 047.

둘째, 음식과 먹음이 ‘군은(君恩)’과 ‘성대(聖代)’라는 표현 속에서 현실의 사회정치적 의식을 표명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濁醪溪邊에 錦鱗魚 | 안주로다
이 몸이 閑暇히움도 亦君恩이샀다

- 맹사성, <강호사시가>, 『청구영언(진본)』 009.

님금과 百姓과 스이 하늘과 짜히로되
내의 설은 일을 다 알로려 흐시거든
우린들 술진 미나리틀 혼자 어이 머그리

- 정철, <훈민가>, 『청구영언(진본)』 041.

작품 009에서 술과 금린이 안주는 화자의 한가롭고 평온한 삶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당연하게 ‘군은’이 전제되었다. 한편 작품 041의 화자는 ‘살진 미나리’를 임금께 바치고 싶다고 얘기한다. 이 경우 음식은 미각적 쾌락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보다는 임금을 향한 화자의 연모와 충심을 표백한, 다분히 사회정치적 발화로 이해할 수 있는 언술이다.

아래 작품에서 화자가 기꺼이 술 취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이 좋은 聖世’를 만났기 때문이다. 물론 태평성대가 그저 술 마시기 위한 핑계거리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군은(君恩)을 노래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현실 정치를 겨냥한 발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生前에 富貴키는 一杯酒만흔 것 업고
死後 風流는 陌上花뿐이여니
므스 일 이 죠흔 聖世에 아니 醉코 어이리

- 김천택, 『청구영언(진본)』 266.

만백성과 더불어 취하리라는 ‘萬姓同醉’를 노래한 다음 작품도 세상 만백성들에게 고루 은택을 나눠주고 싶다는 위민(爲民)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정철이 지은 <관동별곡>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술 가져다가 四海에 고로논화/億萬蒼生을 다 醉케 밍근 後의”⁴⁰⁾라는 과대목과 의미가 상통한다.

景星出 慶雲興하니 日月이 光華 | 로다
三王 禮樂이오 五帝 | 文物이로다
四海로 太平酒 비저 萬姓同醉 ㅎ리라

- 김유기, 『청구영언(진본)』 255.

둘째, 음식과 먹음이 ‘안분’과 ‘지족’이라는 유교적 이념 지향과 통하는 작품들이 있다. 이들 작품 속 화자는 시속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물러나 한가로운 가운데 소박한 삶을 이어가는 존재이다.

쓴 누물 데운 물이 고기도곤 마시 이세
草屋 조븐 즐이 그 더욱 내 分이라
다만당 님 그린 타스로 시름계워 ㅎ노라

- 정철, <훈민가>, 『청구영언(진본)』 059.

이 작품의 화자는 ‘쓴 누물’과 ‘데운 물’이 ‘고기’보다 맛이 있다고 말한

40) 이선본(李選本), 『송강가사』.

다. 그러나 아무리 입맛이 사람마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쓴 나물’과 ‘맹물’이 정말로 ‘고기’보다 맛있을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1차적으로는 ‘맛’이라는 쾌락의 차원에서 음식을 얘기하고 있으나 2차적으로는 좁은 초가집에 기거하는 가난한 형편에서도 ‘안분(安分)’을 잊지 않고 있다는 이념의 차원에서 발화를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사대부가 추구해야 할 유교적 가치가 잘 드러나 있다.

功名富貴과란 世上 사름 맛져 두고
 말 업슨 江山에 일 업시 누어시니
 봄비에 절로 난 山菜 其 分인가 흐노라 - 『청구영언(진본)』 310.

이 작품 속 화자는 한결 더 분명하게 ‘세상’과 거리를 두며 살고 있다. 그는 강호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며 ‘산채(山菜)’가 의미하는 소박하고 자기 분수에 맞는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은일, 한겨와 탈속으로 상징되는 강호가 도의 ‘강호’처럼, 시가에 나타나는 음식은 유교를 신봉하는 사대부가 지향하는 사회정치적 이념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매개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하면, 시조 작품에 나타난 ‘음식’이 사물로서 물질적 대상이 아니며, ‘먹음’이 ‘동물적, 육체적 행위’와 무관한 지점에 있다는 점에서 음식이 일정하게 이데올로기성을 드러내는 구실을 하고 있음이 명확해진다. 이데올로기가 “존재의 실제 조건들에 대한 개인들의 가상적인 관계를 표현한다”⁴¹⁾라고 말한 알퐁 세(L. Althusser)에 따르면, 이데올로기성의 핵심은 ‘실체에 대한 가상적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음식’과 ‘먹음’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맥락에서가 아닌, 이념 구현의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41) “L’idéologie représente le rapport imaginaire des individus à leurs conditions réelles d’existence.” (L. Althusser, “Idéologie et Appareils Idéologique d’Etat”, *Positions*, Editions sociales, 1970, p.114.)

4. 결론

이 글은 음식이 소재로 쓰였거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작품 속에 드러난 음식과 먹음이 지닌 다양한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우선 음식과 먹음은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개인적이고 사회집단적인 정체성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 결과 결속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에도 큰 역할을 한다. 한편 음식과 먹음은 그리움을 일깨우거나 사랑을 드러내는 매개물이 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음식과 먹음에 담긴 함의를 좀 더 분석적으로 살피기 위해 래퍼포트의 세 가지 음식 이념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시조 작품 속에 드러난 음식과 먹음의 양상과 의미를 다양하게 살폈다. 영양주의를 보이는 작품은 거의 없었고 영성주의와 쾌락주의를 보이는 작품이 대부분이었다. 영성주의는 음식과 먹음을 통해 종교나 도덕,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며 쾌락주의는 미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특히 시조에서 음식 이념의 양상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특이점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음식이 특히 술인 경우 세상일의 번답함을 피하고 시름을 달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이 술이, 여색이 포함된 유희의 분위기 속에서는 욕망 일반을 긍정하는 것과 관련된다. 둘째, 시조 작품에는 쾌락 지향과 이념 지향이 뒤섞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쾌락을 추구하면서도 ‘낙이불음’의 사회이념적 경계를 넘지 않으려고 하는 교화적 측면과 닿아 있다. 셋째, 음식이나 먹음이 화자 자신의 사회정치적 지향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 이념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매개물을 의미하는 때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념적(ideological)인 특성을 강하게 띤다. 이처럼 사회정치적 함의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우리 시조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이 연구는 고전시가, 특히 시조 작품에서 음식과 먹음이 어떠한 의미로 작품 속에 형상화 되어 있는지를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론적인 측면을 정교하게 검토하면서도 좀 더 적실한 작품들을 찾아 분석함으로써 이론과 실재가 상응하는 양상을 더욱 세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조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시가 전반으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음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참고문헌

- 김천택, 『청구영언(진본)』.
- 허균, 『屠門大嚼引』, 『惺所覆瓿藁』 권25.
- 강명관, 『조선의 뒷골목 풍경』, 푸른역사, 2004.
- 김학주 역, 『시경선(詩經選)』, 명문당, 2003.
- 주영하, 『음식 전쟁 문화 전쟁』, 사계절, 2000.
- 마이클 폴란, 조윤정 역, 『잡식동물의 딜레마(The Omnivore's Dilemma)』, 다룬세상, 2008, 21쪽.
- 브리야 사바랭, 홍서연, 『미식에찬』, 르네상스, 2011, 존 앨런, 윤태경 옮김, 『미각의 지배』, 미디어월, 2013.
- 앨런 비어즈워스·테레사 케일, 박형신·정현주 옮김, 『메뉴의 사회학: 음식과 먹기 연구로의 초대』, 한울, 2010.
- Leon Rappoport, *How We Eat : Appetite, Culture, and the Psychology of Food*, Toronto: ECW Press, 2003, pp.1~224.
- 류정월, 『조선초기 양반의 술 문화 - 조선 초기 잡록의 술 관련 일화를 중심으로』, 『동방학』 19집, 동양고전연구소, 2010, 335~364쪽.
- 소래섭, 『백석 시에 나타난 음식의 의미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8.
- 안대회, 『18·19세기의 음식취향과 미각에 관한 기록 - 沈魯崇의 『孝田散稿』와 『南遷日錄』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69집, 2015, 167~192쪽.
- 유정선, 『화전가에 나타난 여성의 놀이 공간과 놀이적 성격 - '음식'과 '술'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8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57~83쪽.
- 임재욱, 『백석 시에 수용된 한국 고전시가의 전통』, 『고전문학연구』 39집, 고전문학연구회, 2011, 67~102쪽.
- 정세진, 『소식 음식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조성진, 『蔓橫淸類와 明代 樂府民歌 비교 연구 - 馮夢龍의 『掛枝兒』·『山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Evelyn J. Hinz, "Diet Consciousness and Current Literary Trends", *Mosaic (Winnipeg)*, Summer-Fall, Vol.24(3-4), 1991, pp.v-xiii.

L. Althusser, "Idéologie et Appareils Idéologique d'Etat", *Positions*, Editions sociales, 1970.

ABSTRACT

Aspects of Food Ideologies appearing in Sijo, and its Meanings

Jo, Seong-jin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analyze various meanings of 'Food' and 'Eating' that appear in Sijo, particularly the works which used food as the theme or the subject. In order to do this, the study was conducted to find and interpret the meanings and ideas in Sijo works that are related to the concept of the 'Food Ideology'. Hedonism indicates sensual pleasure, Nutritionism for health and nutritional value, Spiritualism as moral or metaphysical value. The result of the study follows: If the food is alcohol, it functions as a way of running away from the world which also stands out as an affirmation of desire. Secondly, in many cases, Sijo works carry both ideology-oriented and pleasure-oriented tendency. This is considered to be related with the sense of social balance. Lastly, the topic of food and eating indicates the socio-political views of the narrator and used as the tool to construct ideology. In this sense, food and eating used in Sijo works are strongly carrying the socio-political implications.

Key Words Sijo, food, eating, identity, food ideology, spiritualism, hedonism, nutritionism

논문투고일 : 2015. 11. 11

심사완료일 : 2015. 12. 7

게재확정일 : 2015. 12. 15